

## 경운궁은 대한제국의 모태였다

대한제국의 성립과 덕수궁은 서로 떼어 놓고 볼 수 없다. 대한제국의 성립은 태조가 경복궁을 건립했던 것처럼 덕수궁의 건립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이다.

덕수궁은 오늘날에도 우리 정치사회의 중심에 있다. 특히 대한문은 각종 시국 현안이 있을 때 마다 언론의 중앙에 오르게 되었다. 덕수궁 안 전각들 중에도 석조전은 최근까지 논의의 중심에 올라온 곳이었다.

대한문과 서울광장이 면하여 위치하고 있어서 지난해 두 대통령이 영면하게 된 일도 대한문 앞은 시민들의 애도 장소가 되었고 이것은 고종이 승하한 후 장례식 장면과 중첩되어 많은 사람들을 더욱 슬프게 하는 장소성을 나타내었다. 말하자면 덕수궁은 여전히 격동기의 현장이며 지금도 그것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석조전이 미술관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부각되어 한동안 논란이 되었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현재의 과천 현대미술관이 시민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에 분관을 건립함으로써 시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방안으로 추진하였으나 ‘대한제국 정궁’을 미술관으로 만들려 한다는 여론에 부딪쳐 경복궁 옆에 건립하기로 하였다.

석조전은 이미 건립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역사적 조사와 기술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었고 비교적 장기적인 기간을 확보하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자세한 석조전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고자 한다.)

이는 아직도 한 시대의 정궁인 덕수궁이 다른 궁궐들에 비교하여 마치 시민공원, 혹은 휴식처처럼 이용되고 있고, 5대궁 중 유일하게 그 역사성이 소홀히 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어서 정궁으로의 복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 ‘대한제국 정궁’, 경운궁의 조성

이제 덕수궁이 근대적 궁궐로 된 역사를 추적해 보자.

덕수궁이 본격적으로 ‘대한제국 정궁’이 된 것은 ‘민비시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그 동기를 부여하였다. 간단히 말하자면 고종이 민비시해 후 신변의 위협 등으로 인해 러시아 공사관에서 집무하다가 환궁할 때 덕수궁으로 오면서 근대적 덕수궁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때는 경운궁으로 불리었으며 건물도 몇 채 없었다.<sup>1)</sup>

경운궁이 본격적으로 건립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지하듯이 민비가 시해된 것은 1895년 10월 8일이고 고종이 아관파천을 한 것은 1896년 2월 11일이다. 그리고 경운궁으로 입궁 한 것은 그로부터 1년 정도 후이다. 말하자면 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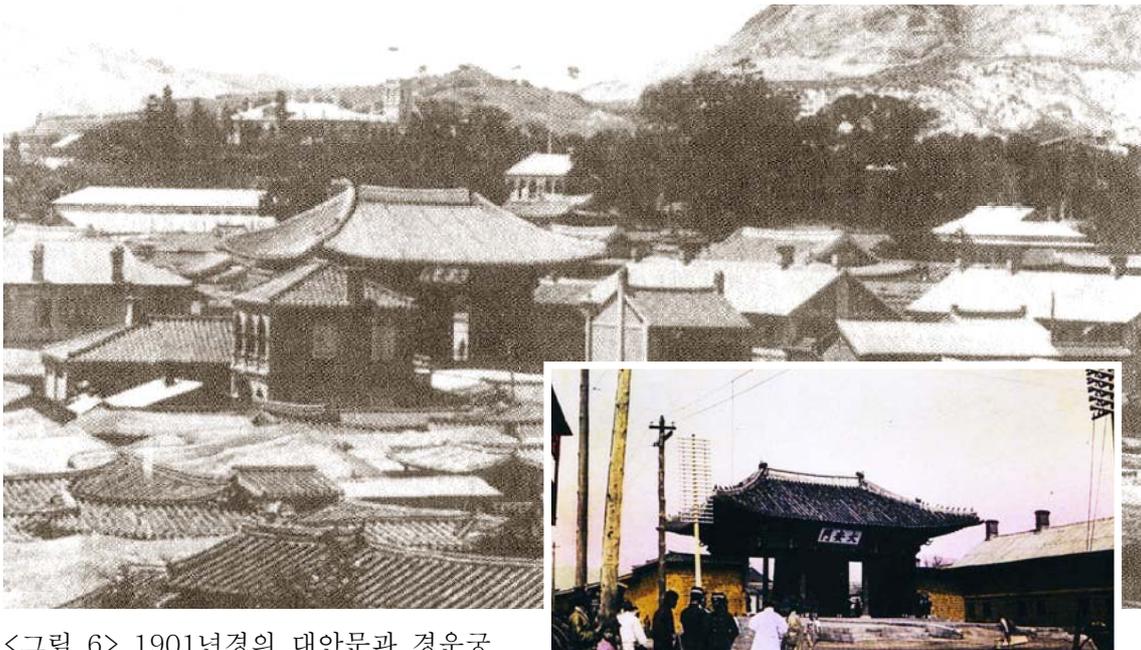
1) 고종이 경운궁에 입궁하기 전에는 있었던 주요 전각은 별전(지전으로 쓰임), 별전(빈전으로 쓰임), 별당(고종 어진 봉안처), 혼전 등이 있었다.

은 러시아공사관에 가 있는 동안 대한제국의 건국을 준비했고 그 일환으로 경운궁을 재건하여 대한제국의 정궁으로 하고자 했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경운궁으로 환궁한 것은 1897년 2월 20일이었다. 나중에 순종이 된 황태자도 동행하였다. 환궁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입궁이나 다름없었다. 궁궐로서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거의 새로 지으면서 입궁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궁장(궁담)도 없었고 주변의 각국 공사관들은 이미 경운궁의 땅들을 상당히 침식한 후 었다. 이런 상황에서 1897년 경운궁으로 들어온 것이다. 고종은 경운궁으로 입궁하기 전 민비의 상종인 1896년에도 상당량의 건축공사를 하였다. 대유재(大有齋), 포덕문(布德門) 등이 그것이다.

고종이 경운궁으로 들어 온 것은 민비가 시해된 경복궁을 기피해서 였고, 이를 기해서 위상에 맞는 격식을 갖추게 되었다. 1897년에는 일부 궁담이 만들어지고 문(平城門)도 짓게 되었다. 건축물도 선원전, 경효전, 보문각 등이 지어졌다. 이로써 경운궁을 상당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또한 경복궁으로부터 만화당 일곽을 이전하여 함녕전 일곽을 짓고 왕실의 거처로 사용했다. 여기서는 외국 사신을 접견하고 황제자신도 상주하였다. 말하자면 대한제국의 개국을 위한 상징적 궁궐을 지은 것이었다. 더불어 남별궁 자리에 환구단을 짓고 천제를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니 1863년 10살의 나이로 즉위한 고종이 35세가 되어서야 집권자로서 권한의 직무를 행한 것이 된다.

입궁 1년 전부터 시작된 궁궐 공사가 4년이 걸려서 1900년이 되자 대략 경운궁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았다. 아직 정전이 없었기 때문에 즉조당(卽祚堂)을 명칭만 태극전(太極殿)으로 바꾸어 정전으로 사용하였으며 궁담도 1900년에 가서 조성되었고 중화전은 1902년에야 지어졌다. 흥덕전(興德殿)은 1900년에 제실로 지었지만, 그해 10월 선원전이 화재로 소실되자 흥덕전도 화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1902년에는 이전하였다.



<그림 6> 1901년경의 대안문과 경운궁

이런 축공과정에서 일어난 일 중에는 궁궐의 여러 문들이 그 기능을 바뀌기도 하고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기도 하였다. 요즘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한문은 처음에는 대안문이었지만 이문이 경운궁을 드나들던 정문은 아니었다. 초기의 경운궁의 정문은 중화문 앞 인화문이었다. 남향을 하고 있으며 고종이 처음 입궁할 때도 이 문으로 들어왔었다. 그러나 인화문은 문밖 마을이 너무 인접하여 있고 드나들기 불편한 구조였다. 특히 1900년에 승례문에서 광화문으로 도로가 새로 뚫려 큰 길이 만들어지자 대안문은 점차 출궁문이 되었고 인화문은 이름을 건국문으로 바꾸었다. 결국 대안문은 경운궁의 정문이 되었고 1906년에는 대한문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림 7> 덕수궁배체도(1904). (김정동 자료, The Korea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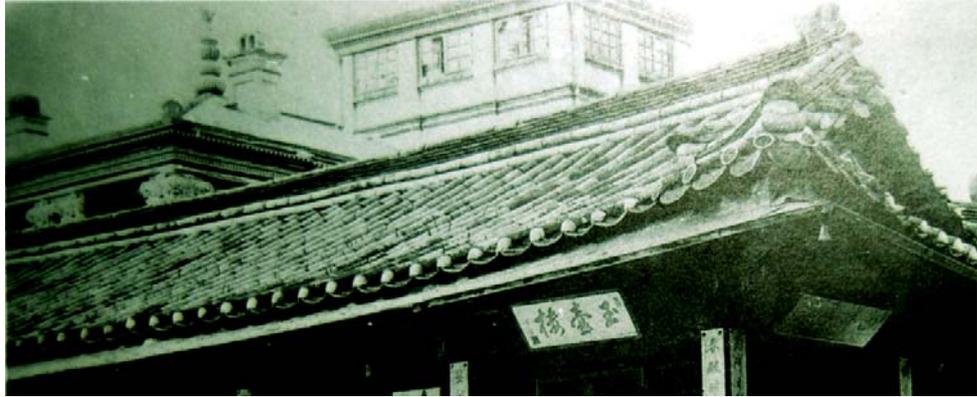
## 경복궁의 ‘관문각’ 해체 및 자재사용에 대하여

1901년이 되어서도 경운궁 내 전각의 신축공사는 계속되었다. 더러는 인접한 민가를 매입하기도 하고 경복궁의 건물을 헐어내서 갖다 쓰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경복궁의 건물’은 건청궁의 뒤에 있는 ‘관문각(觀文閣)’을 지칭하는 듯하다. 일부에서 ‘관문각’을 헐어다 그 자재를 경운궁 건축공사에 썼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건축물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관문각’은 사바전에 의하여 서울에 들어와 최초로 공사 감독한 건축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소개한 김태중의 논문<sup>2)</sup>에서 상세하게 기술되었으나 그 위치나 건물의 형태,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완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진<sup>3)</sup>을 통해서 그 존재가 논의되고 있다.



<그림 10> ‘관문각’으로 보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 옆의 사진보다 한결 선명하고 2층 부분의 건물 형체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사진의 건물이 ‘관문각’이라면 사바전이 서울에 공사한 최초의 건물이 된다.

- 2) 김태중, "개화기 궁정건축가 사바전에 관한 연구 : 고용경위와 경력 및 활동환경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12권 제7호 통권93호 (1996년 7월)
- 3) <사진 9>는 信夫淳平(시노부 준페이)가 쓴 ‘한반도’(1901)에 수록된 사진이다. 시노부 준페이(1871.9.13-1962.11.1)는 1897년 통감부 산하 인천이사청에 근무하였다. 시노부는 [한반도]에서 우리 노래 ‘아리랑’에 대해 "노래의 음조가 얼마나 망국적이며 동시에 불가사의할 만큼 뛰어난 노래인지를 알 수 있다. 남산기슭 왜성대(倭城臺)를 거닐 때 듣는 아리랑은 애가(哀歌)로서 마치 역사의 흥폐(興廢)와 인간사의 비애를 묘사한 것 같다."(조선일보, 2009. 11. 9)고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시노부 준페이는 일제가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파견한 정탐원으로 말하여지고 있다. [한반도]도 그런 각도에서 수집한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11> 경복궁의 곤녕각 뒤에 보이는 ‘관문각’으로 지칭되는 건물. 이 사진에 대해서는 信夫淳平(시노부 준페이)가 ‘한반도’(1901)에 수록한 곤녕각(옥호루)의 사진.

한편 ‘관문각’에 대한 기록으로 ‘키쿠치 겐조(菊池謙讓)<sup>4)</sup>, <조선왕국(朝鮮王國)> (東京民友社, 1896)’을 이순우는 소개하고 있다. 키쿠치는 <조선왕국>에서 ‘건청궁의 북각(北角)에 벽와백약(碧瓦白堊)의 양관(洋館)이 하나 있어 이름하기를 관문각(觀文閣)이라 이르는데, 러시아인 사바친이라는 사람이 축조한 빈전(賓殿)으로 경복궁의 보물은 모두 이 전내에 들여놓았다’고 썼다.(이순우)

김태중은 사바친이 인천시대(1883. 9. 17 ~ 1888. 4)를 끝내고 서울시대(1888. 4. ~ 1904. 2)를 시작하면서 관문각 공사가 맡겨졌다고 했다. 김태중은 사바친의 이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내역서에 기록된 사실을 근거로 ‘벽돌과 유리가 들어갔으며 증기보일러가 설치되었고 앞뒤로 복도와 계단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에 일본산 자재와 일본인 기술자가 투입되었다’고 하고 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조선인 관리와 사이에 분규가 있었던 것을 이 논문은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건축의 규모와 형태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사진에 나타난 건축의 규모는 2층 혹은 3층(탑형 포함)으로 보이며 덕수궁 정관헌에서 볼 수 있는 직선형 지붕형태를 갖고 있다. 또 증명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층에 회랑을 두고 처마를 받치는 열주를 두었다. 복원된 증명전의 회랑은 아치형으로 기둥이 구성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아치는 없다. 재료는 벽돌을 주로 사용하고 석재도 썼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둥에는 주두 장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러시아 공사관의 열주에서 보이는 장식과 유사할 가능성이 크다.

탑상 부분은 러시아공사관의 탑부분과 비교하여 볼 수 있다. 러시아공사관에서는 열주 사이에 아치를 넣은 것과 같이 탑상에서도 아치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관문각에서는 탑상부분에서도 2층 회랑부분에서도 아치를 사용하지 않았

4) 키쿠치 겐조(菊池謙讓)는 민비시해 사건에 참여한 사람으로 당시 ‘한성신보’(서울의 일본신문)의 일본인 기자였다. 그도 일제가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파견한 정탐원으로 말하여지고 있다. <조선왕국(朝鮮王國)>도 그런 각도에서 수집한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12> 러시아 공사관에서는 아치를 받치는 열주에 주두 장식이 풍부하게 사용되었다. 관문각에서는 아치가 없으나 주두 장식이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일종의 통일감을 보이고 있다.



<그림 13> 러시아공사관의 옥대루 뒷면에 보이는 부분만으로는 충분히 판단할tap상 부분 수 없으나 2층 높이로 보이며 탑상부분은 러시아 공사관처럼 건물의 높이를 주기 위하여 4층 정도의 높이를 준 것으로 보인다.

덕수궁 정관현에서의 지붕은 직선형의 심플한 지붕선을 보인다. 마치 작도한 도면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건축물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붕 하나만으로도 사바쩐의 설계이었음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아무튼 이 건축물이 어떤 연유로 10년도 안되어 해체되어 덕수궁으로 와 어떤 건축에 부재로 사용되었는지는 아직 밝히기 힘들다. 사바쩐이 덕수궁과 인근에 지은 양관(정관현, 돈덕전, 구성현, 증명전, 환벽정)은 대개 1900년 이전이고 경복궁의 관문각이 헐린 것은 사진 자료에 의하면 1901년이다.

다만 석재를 주로 갖다 썼다고 하니 전통적인 전각들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1901년 즈음에는 석조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준비되고 있어서 이 건물을 위하여 준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다른 양관(정관현, 돈덕전, 구성현, 증명전, 환벽정)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이들 양관들이 1900년 이전에 지어졌다는 연구의 결과만으로 볼 때 여지가 남는다. 양관을 헐어다 쓴 것이므로 양관의 자재는 양관을 짓는데 쓰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들 건축물의 건립연대나 과정이 상세하게 연구되지 않아서 다소 의문점은 남을 수 있다. 새로운 자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 ■<심층탐구 끝>